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 인: 이 중 윤 발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정보화시대의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 제 18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

한국교회갱신 연구원은 제 1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주제를 정보화시대의 교육목회와 교회성장으로 정하고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주간 교육일정표를 발표하였다(시간표 참조).

9월 둘째주에 추석 연휴가 끼어 3째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의 제 1교시는 이중윤목사의 사도행전 연구가 있고 제 2교시는 주제에 따른 열명의 강사가 초빙된다. 이번 학기도 강남 YMCA강당에서 세미나를 갖게 된다.

◆ 제 18학기 목회자 세미나 시간표

제 1교시	날짜	제 2교시
사도행전 연구 이중윤	9. 18	1. 정보화 시대의 교육목회/김만형(사랑의 교회)
	9. 25	2. 정보와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한 교회의 대응/정일웅(충신대)
	10. 2	3. 청년목회의 이론과 실제/김동호(동안교회)
	10. 9	4. 교회교육의 활성화와 교회성장/이승하(해방교회)
	10. 16	5. 교회 성장의 이론과 실제/명성훈(교회성장 연구소)
	10. 23	6. 언론포매체와 교회성장/김장환(극동방송)
	10. 30	7. 교육목회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은준관(연세대)
	11. 6	8.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박 건(인양 평안교회)
	11. 13	9. 주일학교 성장 사례/서영호(부산 서부교회)
	11. 20	10. 21C와 새신자 목회/이용남(장석교회)

농촌전도대 파송

- 민족복음화의 기치를 들고 -

오는 8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3박4일간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상리교회를 중심으로 농촌 전도대원 56명과 강사 4명이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중시 장로)에 의해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파송식을 갖는다. 축호전도 이웃초청잔치 봉사활동 여름성경학교 운영 그리고 전도집회를 통해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될 이번 전도대는 4차례에 걸친 교육과 기도회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일에 4명의 선발대가 현지로 떠나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행사장소인 상리 초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해마다 농촌전도대원을 파송하는데 올 해에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번에 파송 될 전도대 명단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농촌전도봉사대원 명단

이규정 최중시 왕경래 김성준 강신혜 강애자 곽 숙 광정임 권윤경 김규태 김명숙 김상욱 김선영 김성임 김세하 김윤희 김은숙 노선균 박미혜 박영옥 박재원 성기연 신범식 신용식 심상필 안분선 안재희 유율상 윤숙희 이남복 이상호 이양철 이윤혜 이인근 이자혁 이주연 임관자 장양일 전용순 정동호 정순철 정정숙 조정식 조현숙 주경자 최길옥 최용걸 최유현 김명숙 김옥환 이종수 김정운 안정옥 김숙자 홍정선 최상설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장로 세미나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장로 세미나가 오는 8월 14일, 15일 양일간 산음수양관에서 열린다. 9개 분과로 나뉘어 그룹과제를 받은 장로들은 새 예배당 시대 우리교회 목회 전반에 걸친 의견을 연구하여 발표하게 된다. 발표된 안은 연구 검토한 후 채택하여 시행케 될 것이다.

열린바지를 위한 부서별 조직 및 임무 발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바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부서별 조직이 확정되었으며 아울러 각자에게 부여될 임무가 주어졌다. 이를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매 주일 전체 회의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종합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부서명	직책	성명	임무	실행위원		
바자본부	대회장	이중윤	대회장			
	위원장	임광식	위원장			
	고문	이용선, 이남호	자문			
	지도	이성득, 정윤돈, 고경선, 이규정, 지혜영	대회장 보좌, 기도회 인도			
	권행위원장	박철훈	대회업무총괄, 회의주관, 내빈접대			
	서기	김광진	회의록 작성, 회의소집연락, 기록부관리	홍성주, 김상욱		
	회계	노문환	회계출납, 판매대금수납, 외상매출금수금, 현금명부작성, 동산, 부동산, 귀중품관리	최재규, 김정희, 제오복, 최용걸		
감사	오정수	감사				
기획부	부장	박두호	차장	이복규	기본계획수립, 각부계획서 종합 및 조정	오광환
판매관리부	부장	윤관오	차장	조정식	기증품집수, 보관, 분류, 가격책정, 판매품배정, 가격부착, 판매대 배정	박두영, 홍정선, 허상환, 송인권, 장양일, 오승민, 한주환
시설부	부장	김태기	차장	오형철	행사시설, 판매대설치, 안내표지, 개폐장, 예배시설	이승우, 오유식, 양인수, 조철기, 이인근, 이양철, 김선희
섭외부	부장	전기섭	차장	김세재	특산품섭외, 외부회사상품섭외, 자매교회특산품섭외	신순우, 김형택, 이보우
홍보부	부장	이완형	차장	신용식	주보와 순례자광고, 홍보물제작, 배포, 포스트 현수막 제작, 지역인사에게 초청장 발송	김규태, 서준식



이스라엘의 회복

성경 : 이사야 37장 30 ~ 38절



이종운 목사

이스라엘은 랍사게에 의해서 포위되어 순간 후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울면서 하나님의 종에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 해달라고 부탁 하고 자신은 선전포고장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1.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유력한 보호자가 되신다

(1) 경제 회복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음 두 해에는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을 먹다가 삼 년째에는 전쟁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이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30절)

'3년'은 히브리인의 계산에 의하면 예언된 기간을 기점으로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앗수르 군은 철군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경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로우심입니다.

(2) 남은 자의 구원

히스기야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한바 있습니다. 31절의 남은 자는 앗수르의 공략에서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BC

586)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를 가리키고 종말론적으로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롬 9:27).

이 남은 자는 잘 착근 된 나무처럼 유대 땅에 안착하여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까지 가든지 찾으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히 '피하는 자', 즉 남은 자를 보호하십니다(32절).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의 품안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유력한 지도를 받게 됩니다.

2.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해와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과 왕국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신다는 예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은 그의 영광을 다시 찾으시기 위함이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35절).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자손으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리라'(삼하 7:12)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다윗 왕조가 일시 중단 된 것 같으나 그것은 택하신 백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 왕조를 아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윗 왕조는 영적으로 영원히 지속됩니다(렘 30:9, 겔 37:24, 호 3:5).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민을 위한 일이겠으나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산헤립이 여호와의 회복하고 예루살렘 침략을 호언했는데 그것은 무산되었고 다윗 왕국은 계승되었습니다.

33절의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딸이 산헤립에게 머리를 흔들는 것(22절)과 하나님이 산헤립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29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구원의 확신과 위안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앗수르 군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고 왔던 해안길을 따라서 되돌아가게 된다고 명확하

게 말합니다.

산헤립은 립나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곳은 예루살렘에서 60km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곳에서 구스의 디르하가가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산헤립의 예루살렘 진군은 중단되고 예루살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산헤립의 군사적인 작전에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약속대로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향해 화살 하나도 날려보내지 못한 채 퇴각하고 말았습니다(33 ~ 34절). '그가 오던 길 곧 그길로 돌아가고'(34절)라는 말은 히스기야 왕을 안심하게 한 가장 큰 위로의 말입니다. 조직적 공격도 개시하지 못하고 패주 당한 것은 히스기야 군대가 강하거나 그들의 작전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해와 방패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영을 내리실 때 한 사자가 하루밤 사이에 거대한 군사들을 시체로 만들었습니다(36절).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십 팔만 오천 인이 단번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76편의 시가 이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앗수르의 산헤립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수치스러웠을 뿐 아니라 그의 군대를 멸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여 약 20년 동안 두려움과 공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산헤립은 자기를 보호해야 할 아들의 칼에 죽어 자신이 보호를 구하던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는 비참한 말로를 맛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당신의 백성은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십니다.

여 · 름 · 수 · 련 · 회 · 를 · 마 · 치 · 고



유년부 **꿈이 이루어 지리이다**

황지혜(유년부)

신나는 여름성경학교다.

성경공부시간이 좋았다. 믿음이 있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인형극을 보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모든 어린이가 지옥가야 되기 때문에 큰일이라 생각되었다. 셋째날은 비가 와서 양재 시민의 숲을 가지 못했다. 그대신 센타 학습체험을 통하여 「앞으로 나는」코스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기도 코스에서는 한명 한명 기도해 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기도를 통하여 내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 *



감동은 빗물과도 같습니다. 어느 순간 날아와 넓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난 이번 수련회에서 소나기를 맞은 듯한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3학년 김성국

과연 2만원의 가치가 있는 수련회일까? 내심 아깝기도 하고 학원도 못 가니 수련회에 큰 기대를 하고 갔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한 동상을 봤는데 어떤 목자가 어린양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보고 있는 듯 하였다. 가장 인상 깊은 시간은 "순례자의 길"이란 시간인데 너무 힘들었다. 4km이상을 걷고 길을 잘못 들어 다시 돌며 겨우겨우 도착한 아주 고된 시간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 시간을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한 것은 그 길을 걸으며 전도용 휴지와 사영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기쁨이란... 전도하는 기쁨을 그때 느꼈다. 너무 보람되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다.

저녁에 캠프 화이어도 정말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2학년 김명은

제일 재미있는 것. 뉴에이지!!!

여러 가수들, 클래식 같은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 영혼을 좀 먹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정말 무서웠다.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있더니...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게 문제였다. 그리고 가수들을 봤는데 너무 무서웠다. 뮤직 비디오도 많은 악세사리에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런 걸 알게되어 정말 기뻐다.

2학년 김기운

캠프 화이어도 하나의 실수였지만 서로가 조금 가까워졌던 것 같다. 불이 안 붙어서 다시 불인게 아쉬웠지만, 서로 손발을 맞추고 놀았던 것이 참 좋았다. 마지막 수련회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많은 기대를 했던 수련회였다.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정말 기억에 남았을 텐데...

3학년 임종현

7, 20 광림 수도원으로 갈 때까지의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다. 더운 그 길을 지나 광림수도원을 도착하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를 반겼다. 고생 끝에 낙이라더니... 그 말이 맞는듯 했다.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 강의 너무 좋았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잘 가르쳐 주신 시간이었다. 그리고 크리스찬 문화, 강좌... 평소에 너무 듣고 싶었던 내용이었다. 크리스찬으로서 대중 문화의 물결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게 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던 락(rock)과 뉴에이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7, 21 오늘은 캠프 화이어가 있는 날이다. 캠프 화이어는 언제 들어도 즐거운 것인 것 같다. 하루 종일 밤을 기다려 캠프 화이어 시간이 되었다. 캠프 화이어 시간, 폭죽과 불로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너무 재미있었고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다.

3학년 고아라

아침 9시 30분 정도에 출발한 2000 서울교회 청년부 하계수련회! 내전 서울교회를 섬긴 이래 처음 맞이하는 수련회였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아름다운 은혜를 기대하며 2시간 정도 달린 버스는 경기도 산음휴양원에 도착했다. 도심에선 느낄 수 없었던 우거진 숲에서 뿔뿔이 나오는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나를 맞이해 주었다.

"주님! 이번 수련회에는 어떤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려는지요?" 혼자말로 중얼중얼... 수련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예배. 찬양소리, 기도소리, 말씀소리, 역시 자연과 어우러지는 예배의 분위기는 세상에서의 지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날 고경선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자신 할 수 있었다. 죄를 십자가에 못박고 죄 앞에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어야 만이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보

다 예수를 참된 친구로 맞아 예수를 사랑하면 죄 앞에서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도 내

을이며 나의 죄의 깊이를 느끼며 회개의 눈물, 그것을 알게된 기쁨의 눈물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있었다. 죄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진리를 생각하며...

성경공부, 공동체훈련, 기도회,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를 서로가 섬기는 자세로 예쁜 모습으로

새벽이슬같은 주님의 청년들...

이근대(청년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사함을 깨달았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위로하시고 잘못된 모습을 보실 때면 항상 꾸짖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상대로 나를 이끄시고, 기뻐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다. 둘째 날 오늘은 이종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달려오셨다. 그 말씀 또한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왔다. "그리스도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있는 새 생명, 생명의 활동들, 교회, 사도, 그렇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것들도 행통할 것이다. 말씀 하나 하나에 내 자신과 연관하여 귀기

이어져갔고 각자수련회에 가지고온 숙제들을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진지했다. 성경공부는 뜨겁게, 공동체훈련은 섬김과 희생으로, 기도회는 눈물과 맘으로, 이렇게 수련회는 마지막을 달리고 있었다. 수련회를 통해 느낀해진 신앙의 고백과 나태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함으로 가득찬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한번 주님께로 가는 좁고도 가시밭길 같은 그길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상대로 주님의 새벽이슬같은 청년들을 만들어주시니...

“하나님을 뵈을 수 있게 하소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집사」란 주님을 섬기고 이
웃을 섬기는 것을 위하여 일하
는 일꾼, 수종자, 하인, 사역자,
청지기, “주”의 종을 돕는 사람,
구제하고 부조하는 일, 또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
는 일 등의 의미와 사명을 가지고 수행해 내는
직분이란 공부를 하면서 감히 주님앞에서 주신
소명을 감당 할 수 있는지 떨리는 마음 초조하기
만 합니다.

탁경준(피택집사)

솔직히 한 가지도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깊이 신앙의 믿음을 체험도 못하고 직분을 받은
자신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서 회개의 눈물을 뿌리는 자세만이 이 사명을 감
당하리라 믿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열심을 다
하여 배우고 있는 10명의 피택 안수 집사들의
모습은 서울교회의 기동같은 침병 분대처럼 혼
련되어 가고, 새로운 성전시대를 향하여 앞장서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로 간구하면

금년도 서울교회가 지명하여 하나님의 부르
심을 받은 저희 직분자들은 왜 우리가 선택을 받
았는지 배우면서 맡겨진 사명을(Mission) 감당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
다. 위대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성령충만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열리
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
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마음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저희가 너무 미약하여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반드시
이번 피택 안수집사 훈련중에는 내가 믿으면 하
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
저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동정 ■

- 김영한 목사(장년부 지도)는 호주 브리스번에서 열리는 한로신학회 강연과 퀸즐랜드 대학의 교수모임에서의 강연을 위해 출국하였으며 8일에 귀국예정
- 강민희(시온찬양대 지휘자)의 장녀인 박 마리아(초등부) 학생은 음악저널주최 플룻부콩쿨에서 1등상을 수상함.
- 이사: 김광신장로 대치 삼성아파트 103-2303
- 이사: 하영수장로 대치 삼성아파트 108-302
- 전화번호 변경
: 유준관 집사(진선미 권사): 3013 - 7695

■ 신간소개 ■

작년과 올해, 흥해작전 기간 새벽마다 우리를 감동시킨 李鍾潤 목사님의 강해설교 ‘천국 시민윤리’인 「**산상보훈**」이 드디어 책으로 엮여 나왔다. 교회 테이프실과 생명의 말씀사에서 보급중.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최학인 장로, 최소희 집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은빛찬양대 - 7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기도의 불씨가 되어

이영희(피택권사)

지난 5월 28일 저는 공동의회를 통해 권사로 피택을 받았으나 감격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고 심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부족한 내가 이와 같이 과분하고도 무거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또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다른 교인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지 자문자답하며 아직 집사로서 봉사하며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믿기에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6월 9일 전체 피택자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시간을 시작으로 총 15주 교육을 지금까지 1차 7주간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후 시작되는 강의를 통해 시간시간

바뀌는 강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약간의 긴장된 마음과 기대 속에서 늘 새롭게 저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권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권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듯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오늘도 겸손히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봅니다.

그리고 나 뿐만 아니라 이번에 권사에 피택된 모든 집사들이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 서울 교회를 위하여 쉬임 없이 기도하며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시험 당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교역자와 제직, 또 성도사이에서 사랑과 화평의 가교가 되며 철저한 성수주일, 예배모범, 그리고 집회 때 마다 꼭 참석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작은 등불 즉 기도의 불씨가 되어 교회를 살리는 여종들이 되기를 꿈꾸며 소원해 봅니다.

■ 이중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건축현금 바칠 수 있도록
2. 건축 바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3. 농어촌전도대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